

국내경기는 3개월 연속 개선

~ 인프라 정비 및 방재·재해복구 공사가 상승시켜 ~

(조사대상 2만 7,093사, 유효회답 1만 1,188사, 회답율 41.3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4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3포인트 증가한 44.6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. 국내경기는 인프라 정비 공사 확대 및 외출 기회 증가 등으로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. 향후의 경기는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개인소비 및 기업수익 개선으로 인한 설비투자 등도 있어 낮은 상태로 추이해갈 것으로 보인다.
- 『건설』 『서비스』 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에서 개선, 악화는 3개 업계였다. 인프라 및 방재·재해복구 공사수요의 확대나, 2번의 3일 연휴로 인하여 레저 관련에서 회복이 보였다.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, 1개 지역이 악화되었다. 공공 공사 및 레저 수요가 플러스 요인이 된 한편 무더위가 계속된 지역에서는 가을겨울 수요가 저조하였다. 규모별로는 2개월 만에 「대기업」 「중소기업」 「소규모기업」 이 모두 개선되었다.
- 행락 시즌을 맞이하여 숙박 및 오락에 대한 소비는 상향하였으나 무더위 관련 수요의 피크아웃, 식료품, 일용품 소비는 악화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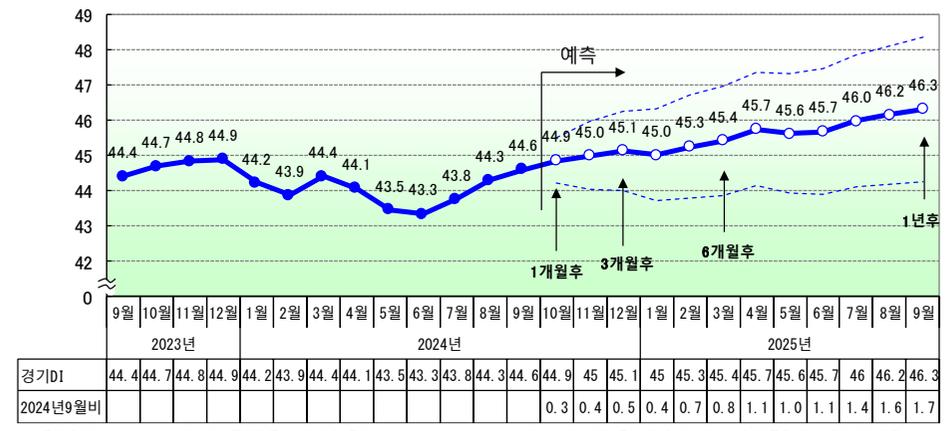
< 2024년 9월의 동향 : 3개월 연속 개선 >

2024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3포인트 증가한 44.6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. 국내경기는 인프라 정비 공사 확대 및 외출 기회 증가 등으로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.

9월은 인프라 정비 및 방재·재해복구 공사 등이 건설관련 외에, 인력부족을 해소시킬 생력화(省力化)를 위한 설비투자 관련이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. 물류량 증가가 화물운송업계에 플러스 영향을 준 한편 2번의 3일 연휴가 가까운 레저 수요를 환기시켰다. 또한 인바운드 수요를 베이스로 숙박 관련이 호조였다. 한편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주기회 손실 및 자동차 부품의 재고증가, 무더위로 인한 특수 발생, 식품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구매 보류, 호우 등의 자연재해는 마이너스 요인이었다.

< 향후의 전망 : 낮은 상태로 추이 >

향후는 실질임금의 계속적인 상승, 금리 및 환율, 주가 등 금융시장의 동향 등이 주목된다. 관광산업 회복 및 DX 추진, GX 정책 확대 외에, 인력부족에 대응하는 설비투자 실행은 호재가 될 것이다. 게다가 생성형 AI 보급 및 반도체 수요 확대도 플러스 요인이다. 한편 2024년 문제에 따른 물류 코스트 상승 및 인플레이션, 가계의 절약 정신, 확대되는 국제적인 긴장 등은 하향 요인이 될 것이다. 또한 이 시바 정권에 의한 경제정책의 내용 및 미국 대통령선거의 행방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. 향후의 경기는 개인소비 및 기업의 설비투자 등이 지탱하여 낮은 상태로 추이해갈 것으로 보인다.



*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고 있다.